

제24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제2차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해운대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12월 10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 1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 1면

### 1. 2020년도 예산안

###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서정학

(14시 07분 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5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차 본회의 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도 예산안
-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정학

그러면 부서별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검토 및 삭감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

2 (제24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통협력과,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변수영**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학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재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정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협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반갑습니다. 소통협력과장 김유성입니다.

예산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학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통협력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검토요구사항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예산안 검토요구예산(소통협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정학**

소통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학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시 삭감요구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예산(관광문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위원장 서정학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군 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소통협력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건이다, 그렇죠?

○소통협력과 김유성

맞습니다.

○김성군 위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소통협력과 김유성

예.

○김성군 위원

지금 중학교만 하시는 거죠?

○소통협력과 김유성

예, 맞습니다.

○김성군 위원

2억 8,000만 원 이거 구비죠?

○소통협력과 김유성

구비입니다.

○김성군 위원

초등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소통협력과 김유성

초등학교는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원래부터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안 하고 있고, 초등학교는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처음부터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 없습니다.

○김성군 위원

고등학교는요?

○소통협력과 김유성

고등학교는 아직... 중학교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고등학교까지는 염두가 안 나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고등학교 부모들은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나중에 예산으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소통협력과 김유성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김성군 위원

4 (제24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언젠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통협력과 김유성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

○김성군 위원

그때 같이 하면 안 돼요?

○소통협력과 김유성

그거는 정부가 좀 해야지, 지자체로서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하면 몇 년 정도 하죠? 고등학교를 갈 때까지, 언제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소통협력과 김유성

무상급식 말입니까?

○김성군 위원

아니, 친환경...

○소통협력과 김유성

친환경 우수농산물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해마다 한다니...

○소통협력과 김유성

아니, 중학교 우수농산물 친환경급식은 해마다 예산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중학교?

○소통협력과 김유성

예. 초등학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교육부에서 무상급식을 할 때부터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쓰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작년에 했다는 말입니까?

○소통협력과 김유성

중학교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재작년부터?

○소통협력과 김유성

예. 교육청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고등학교는 언제 할 예정입니까?

○소통협력과 김유성

고등학교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사실 중학교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게 전체 금액에서 2~3%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고등학교까지 범위를 넓힌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김성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학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식 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통협력과장님,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초·중학교가 무상급식이 아니니까, 그렇죠?

○소통협력과 김유성

예.

○박성식 위원

사업명세서를 보면 ‘중학교 우수농산물 구입비’라고 해서 이번에 2억 8,000만 원인데요. 우리 구분담금도 22억 9,100만 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소통협력과 김유성

맞습니다.

○박성식 위원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는데 굳이 또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해서 줘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소통협력과 김유성

위원님께서도 어찌 보면 이중으로 지급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외견상으로 보면 사실 이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농산물 또는 친환경 쌀을 지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라는 그 분야에서 조금 더 보태서 친환경 또는 우수농산물, 좋은 쌀, 좋은 식품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견상으로는 중복이 된다고 하지만 내용으로는 중복이 안 됩니다. 내용으로는 더 좋은 쌀로 변형을 시키는 거라서 중복은 안 된다고 봅니다.

○박성식 위원

올해는 이런 사업이 없었죠?

○소통협력과 김유성

2017년도부터 했습니다.

○박성식 위원

2017년도부터 했습니까?

○소통협력과 김유성

예.

○박성식 위원

그런데 부산에도 보니까 부산진구와 기장군이 하고 있다, 그렇죠?

○소통협력과 김유성

예. 안 하고 있는 데가 북구하고 금정구입니다. 두 군데 외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박성식 위원

6 (제24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소통협력과 김유성

예.

○박성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학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최은영 부위원장님.

○최은영 위원

반갑습니다. 중학교 우수농산물 구입비와 관련해서 자꾸 이것만 질의하게 되는데요. 이게 2017년도부터 하셨다고 했죠?

○소통협력과 김유성

맞습니다.

○최은영 위원

2017년도부터 했고 무상급식은 2019년부터 했습니다.

○소통협력과 김유성

예.

○최은영 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동일한 금액의 2억 8,000만 원이 올해도 그대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왜 상임위에서 검토요구로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는지...

○소통협력과 김유성

제가 볼 때는 아까 박성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 중복성에 있지 않느냐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은영 위원

작년에 시행을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소통협력과 김유성

작년에는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 한 번 더 위원님들께서 깊이 생각을 해 보시다 보니까 이거는 중복성이 아닌가, 판단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통과가 됐는데, 올해는 안 되고... 특별한 큰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재검토로 올라왔다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중복으로 깊이 생각하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은영 위원

혹시 지금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 비율로 지원을 하고 있죠?

○소통협력과 김유성

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최은영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북구, 금정구를 제외하고 다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까?

○소통협력과 김유성

맞습니다.

**○최은영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비율로 다들 하고 있습니까?

**○소통협력과 김유성**

제가 비율로는 답을 못 내겠는데요.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최은영 위원**

228원, 기장군은 600원...

**○소통협력과 김유성**

예. 사상구는 133원, 강서구가 201원...

**○최은영 위원**

그러면 해운대구가 147원이면 높은 편은 아닌 거네요?

**○소통협력과 김유성**

중간 정도입니다. 더 높여주면 좋겠지만 구예산도 있고 또 무상급식을 하다 보니까... 16개 구·군 중에서 무상급식을 똑같이 해도 학생 수가 많으니까 그만큼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은영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학**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학**

예, 최은영 위원님.

**○최은영 위원**

재무과장님, 대부분이 문화복합센터와 관련된 청사의 유지보수 건인데요.

**○재무과장 변수영**

예.

**○최은영 위원**

건수가 5건 정도가 올라왔는데 여기서 우선순위를 매기자면 어느 게 제일 급합니까? 안전과 관련 되어서 급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변수영**

5건에 대해서, 안전과 관련된다고 하면 노후공원등 교체가 야외에 있다 보니까 빗물이 들어가서 단전되는 경우가 가끔 있고요. 그다음 우2동주민센터 리모델링 사업인데, 이거는 안전하고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화장실 쪽에 누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2동에 민원이 많은데 민원실이 좁다 보니까 민원인을 응대하는 직원들이 창구에 앉지를 못하고 뒤쪽에 앉아서 민원인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민원을 봐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2동 새마을문고가 53평이고, 민원실은 43평인데, 이렇다 보니까 새마을문고 안에는 책이 널널하게 비치되어있는 반면에 앞쪽에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고를 축소해서 안쪽으로 밀고, 바깥을... 민원인도 쉴 수 있

고, 동주민센터나 문화복합센터를 찾는 주민들이라든지 일반 이용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캐노피가 2013년도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이 당시에 어떻게 설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철골구조 프레임이 좀 약해서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가 이동할 때 덜컹거리고 하면 이 자체 프레임이 헐렁거리어서 조금 위험하고요. 그리고 렉산 뚜껑도 오래되다 보니까 금이 가고 얇아지는 게 있어서 이것도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실내조명등 교체는 그전에는 삼파장 등을 쓰다가 국가시책에 따라서 전 공공기관은 LED로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내년이 마지막 해인데 그때까지 다 해야지 보고를 할 수 있어서 이걸 해야 되고요. 내부 도색은 안전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2013년 이후에 도색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7~8년이 됐지 않습니까? 조금 보기가 흉해서 이번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영 위원**

우2동주민센터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도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인들의 공간을 넓히고 동장실도 과감히 줄이겠다는 의도도 있고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삭감이유로 과다 편성이 올라왔습니다. 3억 원이라는 예산이 올라갔는데 1억 7,000만 원, 거의 절반 이상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과다 편성이라는 삭감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변수영**

사실 그 전부터 삭감 이야기가 있긴 있어서 어느 정도 2,000~3,000만 원 정도는 각오를 했었지만, 1억 7,000만 원을 삭감하는 건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 생각하고요. 이거는 공사를 하지 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청사계장을 하고 재무과장을 하면서 이 업무를 4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청사계장을 하면서 처음 업무를 맡았을 때 그때만 해도 위원님들하고 똑같았습니다. ‘이게 뭐냐, 집을 하나 짓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 업무를 계속 보면서 정부에서 말한 품셈을 줘야 되고 인건비라든지 각종 공사를 하면 일반 집들보다 3~4배 정도 올라가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1억 7,000만 원을 하게 되면... 사실 1억 3,000만 원을 가지고는 1층 리모델링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민편의 시설을 공사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삭감을 하게 되면 내년 추경이라든지 내후년 본예산 쪽에 이 금액을 편성 요구를 또 하게 될 거고요.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돌려주겠다는 의미로 또 편성 요구를 해서 그때 공사를 하게 되면 이중으로 돈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삭감이 예산절감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영 위원**

그러면 산출 근거가 거의 정확하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변수영**

이거는 건물을 보여주고 현장을 실사해서 대충 잡은 거고요. 이 금액 내에서 어느 정도의 안을 세 부적으로 하게 되면 그 사이에 플러스마이너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총액은 말고요.

**○최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학**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박성식 위원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변수영

예.

○박성식 위원

최은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이 건물의 신축년도가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변수영

2013년도입니다.

○박성식 위원

6년이 됐네요? 몇 층 건물입니까?

○재무과장 변수영

4층입니다.

○박성식 위원

바닥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변수영

바닥 면적이...

○박성식 위원

연면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재무과장 변수영

연면적이 1,800㎡쯤 됩니다. 문고가 175㎡고 민원실이 144㎡입니다. 53평, 44평...

○박성식 위원

삭감 이유가... 아까 최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억 7,000만 원이었죠? 그러면 견적을 올릴 때 자세한 견적은 안 받아서 올린 겁니까? 3억 원...

○재무과장 변수영

그렇죠.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대충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나온다고 냅니다.

○박성식 위원

과장님도 대충 잡아놓은 거네요?

○재무과장 변수영

그렇습니다. 참고로 좌3동주민센터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그때 예산이 2억 원이었는데, 동 자체 예산도 들었고요. 저희가 욕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부담을 좀 많이 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박성식 위원

업체에 부담을 주더라도 구민한테 돈이 적게 나가면 그렇게 하셔야죠. (웃음)

○재무과장 변수영

그러니까요. 그래서 동 예산도 당겨췌습니다.

**○박성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정학**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군 위원님.

**○김성군 위원**

조금 전에 박성식 위원님 질의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사업비에 맞춰서 공사를 한다는 얘기 입니까?

**○재무과장 변수영**

건축사를 데려가서... 그러니까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충 산정을 해서 뽑은 금액입니다.

**○김성군 위원**

그러면 1억 7,000만 원을 깎았는데 1억 3,000만 원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재무과장 변수영**

그렇게 되면 물량이 줄어들 것이고요. 자재가 달라질 겁니다.

**○김성군 위원**

아니,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3억 원을 들이는 공사인데, 그렇게 대충 눈대중으로 합니까? 확실히 데이터나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죠.

**○재무과장 변수영**

그러니까 주민들 요구와 여러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건축은 어느 정도 들고, 설계비는 어느 정도 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김성군 위원**

항상 이런 식으로 합니까?

**○재무과장 변수영**

건축은 그렇게 합니다.

**○김성군 위원**

건축은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대충 합니까?

**○재무과장 변수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동사를 지을 때 45억 원 이런 것들이 평당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김성군 위원**

대충 하면 결과도 대충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변수영**

그렇진 않습니다.

**○김성군 위원**

완벽하게 해야지 결과도 완벽하게 나오지...

○재무과장 변수영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는 평당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리모델링도 마찬가지고요.

○김성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학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위원님.

○장성철 위원

한 건, 한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말숙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구립여성합창단 올라온 것 가지고 말씀을 하시지요?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장성철 위원

금액은 525만 원인데 해 줌으로써... 왜 청소년오케스트라도 있고, 소년소녀합창단도 있고... 계속적으로 올해, 내년에 이런 식으로 525만 원 금액은 그럴지만 연쇄적으로 왜 저기만 해 주느냐, 우리는 안 해 주냐, 이런 선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장성철 위원

아니, 제주도는 다 가고 싶어 하지...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아니요.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소년소녀합창단이란 청소년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씩 자체 캠프가 있습니다. 캠프에 가서 단합을 한다든지 집중 연습을 한다든지 그런 교육의 기회를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여성합창단 경우에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2005년도에 창단을 해서 지금 14년 정도 지났는데, 같이 나가는 경우가 처음이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참가를 하는데, 참가를 하고 싶다고 해서 참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초청이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보내 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참가비만 29만 원인데 절반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고요. 나머지 14만 원과 항공료 20만 원을 하면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49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합창단인 경우에는 성인이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나가서, 공무원들도 벤치마킹을 하듯이 여러 곳을 보면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장성철 위원

과장님, 짧게 하십시오. 그러면 단원이 35명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전원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50명까지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3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예를 들어 합창단 여성단원 정도 되면 전부 다 집안에 여유가 있는 여성들이 아니겠습니까? 합창단을 할 정도라면...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저희가 보니까 여유가 있다기보다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해 주려면 다 해 주지, 15만 원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산만 된다면 다 해 주고 싶지만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장성철 위원**

기왕이면 한 30만 원 해서 하지, 왜 15만 원만 해 주시려고 생각을 했나요? 짝인다고 생각하고 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면 배려를 많이 하셨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금액의 실비 부분을 100% 다 해 주지는 못합니다.

○**장성철 위원**

15만 원하고, 비행기값 20만 원 해서 총 34만 원만 본인 부담금이 들어가면 되네요?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14만 원과 20만 원 정도 하면 35만 원 정도...

○**장성철 위원**

34만 원인데 왜 35만 원이라 하지... 알겠습니다. 일단 관광문화과에 대한 질의는 다음에 하고...

소통협력과 김유성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통협력과 김유성**

반갑습니다.

○**장성철 위원**

올해에도 2억 8,000만 원 그대로인데... 아까 최은영 위원님께서 왜 올해에 또 이렇게 올라왔느냐, 그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소통협력과 김유성**

예.

○**장성철 위원**

그러니까 이걸 올해도 했는데 내년에는 또 이걸 왜 했을까... 아까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 맞

거든요. 보면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무상급식을 했는데 2억 8,000만 원을 준들 거기에 얼마나 친환경 쌀을 들여서 그런 식으로... 무상급식을 해 주는데도, 이중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소통협력과 김유성**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또 2억 8,000만 원을 안 주면 정말로 엄청나게 (값싼) 쌀을 주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소통협력과 김유성**

예. 일부...

**○장성철 위원**

그러면 학생 수가 1만 455명 아닙니까? 올해나 내년이나 학생 수는 그대로입니까?

**○소통협력과 김유성**

거의 비슷한데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면 금액은 쌀 단가가 올라서 그대로인가요? 쌀 단가는 올해부터 내년에 올랐지 않습니까? 친환경이라면 더 비쌀 거 아닙니까?

**○소통협력과 김유성**

친환경은 일반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장성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친환경이 들어오는지 그걸 다 확인하고 있습니까?

**○소통협력과 김유성**

예, 그건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누가 확인합니까?

**○소통협력과 김유성**

교육지원청에서 매매한 서류가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친환경 쌀이 어디의 친환경 쌀입니까?

**○소통협력과 김유성**

친환경 쌀은 어디에 있는 쌀이 아니고...

**○장성철 위원**

이천 쌀입니까?

**○소통협력과 김유성**

그런 건 아니고요. 친환경 쌀은 비료로 안 하는 게 친환경이고 저비료로 하는 것은 우수농산물,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게 정부에서 인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아, 인증을... 정부에서 주는 걸로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소통협력과 김유성

예.

○장성철 위원

그런데 비용을 안 쓰고 하면 학생들한테는 정말 좋은데... 사실 이거는 의문점이 많이 갑니다. 정말 2억 8,000만 원이라는 돈도...

○소통협력과 김유성

그거는 확실하게 연말에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변수영 과장님.

○재무과장 변수영

예.

○장성철 위원

LED조명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 조명이 2018년도에는 141등을 하면서 2,000만 원이 들었고, 2019년도에도 188등을 해서 2,000만 원이 들었는데...

○재무과장 변수영

예.

○장성철 위원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2020년도, 내년에는 100등 해서 2,000만 원을 왜 했느냐, 지금 남은 게 209등밖에 없는데 마저 마무리를 싹 하면서 2,000만 원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느냐고 내가 물었죠?

○재무과장 변수영

예. 그때 제가 그거를 간과했는데 그건 오타였고요. 지금 설명 자료를 새로 드렸는데, 187등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아, 그러면 100등이 아니고 187등입니까?

○재무과장 변수영

예. 그거는 오타였습니다.

○장성철 위원

187등을 하면 전원 다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변수영

그러면 22개 등이 빠지는데 그 등이 공원에 있는 노후등입니다.

○장성철 위원

공원의 노후등까지 같이 쳤습니까?

○재무과장 변수영

예.

○장성철 위원

187등이란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변수영

예.

○장성철 위원

100등이 아니고... 그렇게 2,000만 원이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변수영

예.

○장성철 위원

우2동도 봤고, 문화복합센터 등도 봤고 반여4동에도 보는 중에... 사실 현장을 가봐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올라올 때는 현장 방문을 반드시 가봐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느꼈고 우2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변수영

예.

○장성철 위원

거기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2동에 가보니까 밑에 1층 민원실 자체가... 들어가게 되면 함을 다 없애야 된다, 안으로 넣든지 깨끗해야 된다. 민원인이 들어오면 함이 지저분하게 있지 않게, 함 쪽에 바짝 붙여서 사무장들이 뒤쪽에 앉고... 그 구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재무과장 변수영

예.

○장성철 위원

그러면 그 구조대로 하면 예를 들어 상담실이 저 안쪽에 있으니까 직원들을 거쳐서 상담실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변수영

예.

○장성철 위원

그거를 바깥으로 빼서 상담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동장실 바로 옆에 잘라서 하면 이거는 충분하게, 가벽만 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사에 따라서 공사금이 다 달라지는 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하고, 부분적으로 가벽을 치는 거하고는 다르고... 그다음에 1층에는 앞에 다이를 다시 짜는 것하고 가벽을 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2층에는 바닥을 다시 해야 되고 또 바닥을 새로 하면서 안으로 들어서 많이 보이도록 하는 것은 새시로 다시 하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 1억 원이면 충분하다는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공사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런 식으로 일단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화장실도 (리모델링을 할 때) 해야 되니까 1억 3,0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올라온 게, 아까 20등은 우리가 봐도 사실 아직까지는... 옥상에 올라가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서 그거는 삭감이 충분하다고 우리끼리 말씀을 했습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쪽에서 서로 의논을 많이 했고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헬스장 방수는 물이 새니까 해 주자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못 본 것은 사실 계단하고, 아까 전에 설명을 하실 때 계단에 500만 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변수영**

예.

**○장성철 위원**

계단에 500만 원도... 사실 내부도색을 하는데 500만 원이... 나는 그렇게 보입니다. 계단을 하는데 20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또 우리가 하는 것하고 관에서 하는 건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단이 4층까지 있고 밑에 지하도 있고 해서 6층 건물이라, 옥상에 올라가는 것까지 쳐도 500만 원이면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 그거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아까 전에 캐노피는 설명을 안 들어서 이런 식으로 검토로 해서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에 비, 바람... 그건데, 물론 예산을 팍팍 많이 주면 좋은 재료를 쓰고 이러겠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봐도 적절하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저희들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만 많이 주면 얼마든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고 과장님 기분도 좋겠지만, 그 예산에 맞춰서 변수영 과장님이 적절하게 사용을 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구에서는 예산도 아끼고 서로가... 그런 차원에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변수영**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성철 위원**

답변? 아, 예... (웃음)

**○재무과장 변수영**

저희 쪽에 올라 5건은 사실 시설 개보수라 해서 당장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 개보수라는 게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조치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 4건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우2동 리모델링 사업은 1억 원짜리 공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건축도 그렇고, 리모델링도 그렇고, 평당 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건축은 동사를 지을 때 평당 8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리모델링은 250만 원 정도를 잡습니다. 우2동이 민원실, 문고, 화장실을 합해서 116평입니다. 평당 250만 원을 잡아서 3억 원 가까이 되고요. 그 안에 3억 원이 정해지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계산을 해 내는데 금액이 많으면 좋은 자재들이 들어가고 민원대도 그렇습니다. 나무 판때기로 하는 것과 대리석으로 하는 것은 금액 차가 많습니다. 어떤 자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동이 어떻게 예뻐지느냐, 주민들이 얼마나 편하게 쓰느냐가 있기 때문에 단지 가격으로만 예산을 평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길게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다 알아들으니까요...

**○재무과장 변수영**

잠시만요. 청사 쪽에 시설비가 사실 3억 원 조금 넘는 금액인데, 우리 구 전체 시설비 쪽의 1%도 안 됩니다. 1%를 줄여서 삭감을 했다고 그렇게 성과를 보시려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위원**

과장님, 1만 원짜리 한 장이라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 대리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제가 안 그랬습니까? 거기 공사내역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 총 인테리어를 다 바꾸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가벽만 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이는 좋은 것을 써야죠. 대리석으로 쓰고...

**○재무과장 변수영**

그런데 위원님, 있잖아요. 리모델링이라는 게... 사실 집도 리모델링을 하지만 싱크대를 하나 바꾼다고 해서 싱크대만 바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서정학**

과장님, 설명을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재무과장 변수영**

하다 보면 모든 부분에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단순히 판때기를 하나 설치하고...

**○장성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학**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액에 따라 자재를 쓸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죠. 그런데 그 자재를 좋은 것으로 쓰기 때문에 ‘위원들은 이렇게 해라.’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재무과장 변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학**

당연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변수영**

예.

**○위원장 서정학**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이 나온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과장님, 내용을 살펴보니 양질의 무상급식을 해 줘야 되는 것은 이해를 충분히 했어요.

**○소통협력과 김유성**

예.

**○위원장 서정학**

그런데 147원으로 산출을 한 게... 왜 기장군과 평균을 내서 했죠? 다른 데, 더 낮은 데는 평균을 안 내봤습니까?

**○소통협력과 김유성**

다른 곳하고도 평균을 내봤습니다. 다른 데...

**○위원장 서정학**

여기에는 표시가 없잖아요.

**○소통협력과 김유성**

예, 거기는 조금 더...

○위원장 서정학

높은 데하고, 기장군하고 해운대구가 다른 점이 있죠?

○소통협력과 김유성

맞습니다. 거기는 아무래도 원자력과 관련해서 예산을 받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학

그렇죠. 그런데 거기하고 평균을 내서 자료가 괜찮으니 비교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비교를 하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까?

○소통협력과 김유성

좀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이 상향으로 보고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서정학

비슷한 걸 가지고 예산을... 친구 같은 데는 이해를 하겠어요. 재정 규모와 학생 수가 비슷한 이런 데를 가지고 비교를 해 줘야 되죠.

○소통협력과 김유성

예. 조금 높게 잡은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서정학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해 버리면 위원들이 헛갈릴 수밖에 없지요. 참고를 해 주시고...

○소통협력과 김유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학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변수영

예.

○위원장 서정학

리모델링 관련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이 총 몇 개나 있습니까?

○재무과장 변수영

지금 중1동을 빼고요. 다음에 한다면 반여1동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학

그러면 우2동까지 하면 3개 정도?

○재무과장 변수영

예.

○위원장 서정학

3개 정도 해서 우2동을 뭐 때문에 선택을 했죠?

○재무과장 변수영

일단 문고가 너무 커서 1층 민원실이 비좁은데, 문고는 너무 커서 사람들을 2층으로 올려 보내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정학**

재무과장님, 혹시 동주민센터에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슬라이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동주민센터...

**○재무과장 변수영**

아, 석면이요?

**○위원장 서정학**

예, 석면.

**○재무과장 변수영**

석면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학**

왜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죠? 재무과에서 안 하고요.

**○재무과장 변수영**

그거는 제가 왔을 때부터 동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서정학**

그게 몇 개소나 돼요?

**○재무과장 변수영**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서정학**

제가 파악한 것은 한 10개소가 되는데 그게 시급한 것 아닙니까? 이것(리모델링)보다?

**○재무과장 변수영**

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서정학**

재무과에서 취합을 해서 이런 것을 해야지요. 문고가 얼마나 급한 건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나갈 때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과장님, 1억 7,000만 원을 삭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다고 하셨는데, 삭감이 되면 못 합니까?

**○재무과장 변수영**

1층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학**

다는 못 하고?

**○재무과장 변수영**

예.

**○위원장 서정학**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원영숙 위원님.

**○원영숙 위원**

재무과장님, 원영숙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변수영**

예.

**○원영숙 위원**

저도 사실 현장을 보고 왔거든요. 보고 왔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리모델링을 하는 데 평당 250만 원이 들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책걸상을 들어내면 모든 게 텅 비어있는 사무공간이거든요. 그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동장실을 줄이고 그곳에 민원실이나 아니면... 저희가 제안한 건 복지상담실을 입구에 두는 게 더 맞겠다, 복지상담실 옆에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가구들을 두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거기는 우리가 말하는 리모델링의 개념이 아니에요. 텅 비어있는 사무공간이기 때문에 동장실을 줄여서 그 공간에 가벽을 하나 치는 거고요. 그리고 탕비실이나 복지사무실의 공간이 좁다면 그 사무공간을 배치하기 위해서 그 곳의 공간을 넓히는 거, 그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의 부분이고요. 다른 것은 접수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짜 넣어야 되는 거라서 전혀 리모델링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1층은 바닥 교체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2층 같은 경우도 전체 2층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아니고 새마을문고를 좀 더 확장하는 개념이고 앞에 휴게공간을 두는 거라서 그렇게 큰 공사비가 들지는 않겠다... 다만 이전에 옥상 쪽에서 누수가 되어 있어서 화장실 쪽 벽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손을 봐야 되고 해서, 2층에는 바닥 교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공사비가 드는 그런 개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변수영**

잠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예.

**○재무과장 변수영**

일반주택 리모델링과 행정기관 리모델링이 좀 다른 게, 책상 하나를 밀고 나면 전기·소방이 같이 따라갑니다.

**○원영숙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변수영**

그런 부분이 일반주택에서는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문고 부분도 사실 문고를 민다고 하지만 공간을 축소하게 되면 그 공간을 재배치하게 되고 책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바뀔 수 있고요. 안쪽에 예쁘게 해야 문고 회원들이 호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벽을 밀고 벽을 하나 해체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예쁘게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그것까지도 감안이 되어있고 전기공사나 통신공사비가 4,700만 원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 공간에서 그렇게 크게 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기나 통신이나 선을 다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유분들을 좀 두기 때문에 충분하고, 공간적인 동선 자체가 전부 선을 끊고 하지 않아도 되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4,700만 원의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해 보시면 이 부

분에 대해서 방법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통협력과장님.

○소통협력과 김유성

예.

○원영숙 위원

중학생들한테 우수농산물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소통협력과 김유성

예.

○원영숙 위원

참 취지가 좋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고2까지 저희가 무상급식을 하겠습니까?

○소통협력과 김유성

맞습니다.

○원영숙 위원

그리고 2021년까지는 초·중·고 전체 무상급식을 하는데, 사실 이전까지는 급식에 대한 그런 예산들이 해운대구에 편성이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았습니까.

○소통협력과 김유성

예.

○원영숙 위원

저도 교육지원 예산이 좀 많이 편성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시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이 없다면, 해운대구청에서 하는 2~3%의 퍼센티지는 참 미미한 것 같아요.

○소통협력과 김유성

맞습니다.

○원영숙 위원

저도 학교에 가서 급식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어떤 농산물이 들어오는지 보면 친환경이 아니더라도 참 좋은 자재들이 학교 급식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건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산중에 학교 환경개선을 내년도에 35개교를 하고, 또 다목적강당을 건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통협력과 김유성

예.

○원영숙 위원

지금 다목적강당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구 분담금, 종잣돈이 들어가져야 다목적강당이 설립이 되겠습니까?

○소통협력과 김유성

맞습니다.

○원영숙 위원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그런 예산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요새 미세먼지도 문제가 되는데 그런 예산으로 가고 저희가 초·중·고 무상급식을 하는 이 마당에 2~3%의 친환경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크게 학생들의 건강에 영향을 주겠느냐... 그래서 철저하게 검수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위원회의 바람이었습니다.

○소통협력과 김유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학

원영숙 위원님, 하실 말씀 더 있습니까?

○원영숙 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서정학

그러면 시간이 50분 정도 됐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12분 속개)

---

○위원장 서정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변수영

예.

○김상수 위원

우2동주민센터 리모델링이 있지요?

○재무과장 변수영

예.

○김상수 위원

우리 위원들이 현장 방문도 하고 검토를 충분히 했지 않습니까? 만일에 예산이 삭감된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변수영

원안에서 말입니까? 원안대로?

○김상수 위원

원안 삭감과 그다음에 현재 3억 원이지 않습니까? 당초...

○재무과장 변수영

예.

○김상수 위원

1억 7,000만 원으로 깎여서 1억 3,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와 전액이 삭감되었을 때,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재무과장 변수영

전액 삭감이 되면 내년 추경에 다시 편성 요구를 할 생각이구요. 1억 7,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1억 3,000만 원으로 된다고 하면 공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당초 계획하고는 물량이 달라져야 하겠죠. 한다면 우선적으로 1층 민원실을 하고 여유가 된다고 하면 화장실 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까 서두에 과장님이 1억 3,000만 원을 주면 1층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재무과장 변수영

예.

○김상수 위원

그러면 1층만 하시고, 2층은 내년 추경에 올려서 다시 하시겠냐?

○재무과장 변수영

추경에 하든지 아니면 조금 쉬었다가 2021년 예산에 하든지 그렇게... 거기를 주민 어울림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아예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김상수 위원

이게 과장님의 생각입니까? 동의 동장님의 생각입니까?

○재무과장 변수영

이 동은 건축되고 나서부터 민원실이 작다고 하고, 문고가 크다고 계속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못 했던 부분이 사실 신설동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예산 투입을 못 했을 뿐이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다른 것은 산출내역이라도 첨부되어 있어서 참고가 많이 되는데, 이것은 예산이 큰데도 불구하고 산출내역서에 근거가 없어요.

○재무과장 변수영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리모델링에 평당 250만 원을 잡았구요.

○김상수 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평당 기준으로 해서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재무과장 변수영

예.

○김상수 위원

동에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변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사전에 얘기가 나왔더라면 충분히 견적이 어느 정도, 가견적이라도 받았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어느 업체에서 와서 얘기를 했을 것 같고, 그러면 그 내역이라도 제출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정도는 됐어야 하지 않느냐, 그냥 재무과의 기준으로, 관의 기준으로 해서 평당 250만 원 공급하기를 때려서 산출하는 게... 그 건물의 형태나 상황에 따라서 변수도 있거든요.

**○재무과장 변수영**

그것은 사실 리모델링이라는 게 열어봐야지만 안이 어떤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상황 변동이 생기거든요. 안 열어본 상태에서는 정확한 금액을 뽑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재무과장 변수영**

저는 꼭 3억 원이었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너무 과다 편성한 것 같다, 산출 기초가 너무 부족하다고 하시면 삭감액을 조금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1억 5,000만 원이면 공사를 1~2층 다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변수영**

그렇게는 못 하고요. 2억 원 정도면 조금 힘들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힘들게?

**○재무과장 변수영**

예.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학**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요. 또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학**

하십시오.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소통협력과장님.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예.

**○김상수 위원**

아까 전체 무상급식비 비율이 상당히 낮다고 얘기하셨죠?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예.

**○김상수 위원**

부산시 전체에서 우리 해운대구의 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어떤 비율 말입니까?

○김상수 위원

무상급식비 비율이 우리 예산에서...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무상급식비 비율만 말입니까?

○김상수 위원

무상급식비하고 다 합쳐서...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다 합쳐서 3% 정도 됩니다. 3.2%...

○김상수 위원

3%? 그러면 부산에서 몇 번째 정도죠?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기장군 다음으로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위치가 높죠?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예, 높은 편입니다.

○김상수 위원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상급식비가 2~3%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삼점몇 퍼센트인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전체 교육 예산이 3.2%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3.2%죠?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예.

○김상수 위원

3.2%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 2~3%가 아니고 낮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3.2%라고 얘기해주 시고요. 그다음에 기장군은 상당히 높은데, 부산시 전체에서 기장군 다음으로 우리가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낮은 게 아닙니다. 그 점을 감안하면 우리 해운대구가 상당히 높은 측에 들어가 있고...

이게 만일에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죠?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제가 학교급식 우수농산물에 대한 학술정보를 발췌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해외로부터 농산물 수입이 크게 늘면서 잔류농약, 환경호르몬 등 식품 안전성을 둘러싼 불안 요소가 크게 늘어나면서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어 안전한 농수축산물의 학교급식 사용을 제도화하자는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학교급식법 개정과 더불어 각 지자체 단위에서의 국내 농산물, 우수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사용에 대한 학교급식 조례안 제정이 이어지고 있다, 식품 안전성이 보장된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은 성장기 청소년에게 건강과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주어 인간과 환경, 도시와 농촌이 공존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향후 우리 농산물의 지속적인 확대, 재생산을 이룰 수 있는 국민 식습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다시 말해...’

**○김상수 위원**

과장님, 그것은...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김상수 위원**

그 얘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학교에 보면 아마 급식과 관련해서 엄마들의 운영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도 충분히 이 문제를, 친환경이나 이런 논의를 더 정확하게 합니다. 모든 학교에서... 학교는 친환경이 아니면 납품이 안 돼요. 돼지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전부 다 친환경입니다. 친환경 허가증이 없으면 학교에 납품이 안 됩니다. 급식이...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초등학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예, 중학교는 아직 안 그렇게 하고...

**○김상수 위원**

중학교는 아니네요?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예.

**○김상수 위원**

그만큼 학교에서도... 아마 중학교 엄마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무상급식이 안 될 때 이렇게 지원해 주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가 예산을 많이 늘려서 무상급식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예, 그런데 무상급식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뒤에 내용을 보면 아이들 성장과정에 꼭 이렇게 이론적으로 해놓았던데, 이것은 언론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초등학교가 더 성장과정이 되지, 중학교부터 성장과정에 문제가 됩니까?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초등학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에 못지않게 중학교, 아이들이 제일 많이 클 때 인 사춘기, 중학생일 때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상수 위원

이 쌀은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구매하죠?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그것은 학교에서 인증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김상수 위원

학교마다 배분시켜 줍니까? 금액을...?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예, 맞습니다. 금액을...

○김상수 위원

학교당 얼마를 줍니까? 인원수 곱하기 얼마를 줍니까?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인원수 곱하기를 합니다.

○김상수 위원

인원수에 곱하기를 해서...? 학교에 다 지급을 하네요?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예,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친환경 쌀 지원에 대해서는 한 번도 논의가 없던데...?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그것은 학교 측에서 누락을 했든지 아니면 굳이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학교에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준 예산에 대해서 검토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별로 학생수에 맞춰서 그렇게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까 대상이 중학교까지라고 하셨죠?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예, 중학교만...

○김상수 위원

그러면 중학교에 보낸 공문이나 확답을 받은 서류를 나중에 볼 수 있습니까?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문화과장님.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김상수 위원

제주국제합창심포지엄이 언제부터 됐죠?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올해 36회이고요. 내년엔 37회입니다.

○김상수 위원

올해 36회나 됩니까? 전통이 있네요?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참석 대상이 여성합창단만 합니까? 안 그러면 분류가 어떻게 되죠?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심포지엄이에요?

○김상수 위원

예.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구립합창단도 되고요. 소년소녀합창단도 되고, 시립합창단도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국내에 15개 합창단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부로 저희가 검색해 보니 지금은 20개 정도의 합창단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20개 단체가 다양하게 참석하더라고요?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춘천시립청소년합창단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일반도 있고, 다양하게 구색을 갖췄더라고요.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부산에서는 해운대구의 여성합창단이 유일하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선택된 것만 해도 어떻게 생각하면 해운대구의 문화사절로서 혜택을 받은 것이다,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참석 현황을 쪽 보니까 유일하게 우리 해운대구의 여성합창단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 또한 우리 과장님의 역할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여성합창단의 역량이죠. 그 정도의 실력이 되기 때문에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꼭 집행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나 소년소녀합창단은 같이 교육을 받고, 어떤 단합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1년에 2번씩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합창단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역량도 키우고,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역량을 저희 구민을 위해서 정기공연이나 수시공연을 통해서 되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이게 매년 참가입니까? 올해 1회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죠?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올해 처음이라 또 참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아마...

○김상수 위원

올해 1회로서...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그렇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죠.

○김상수 위원

1회 같으면 우리가 한번 참가를 함으로써 문화의 폭을 넓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합창단 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같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학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통협력과, 관광문화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소통협력과장,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

**○위원장 서정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늘푸른과,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류영입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학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 검토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예산안 검토요구예산(일자리경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정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학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푸른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 중 삭감 요구한 예산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예산(늘푸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정학**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윤창희**

반갑습니다. 문화회관장 윤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학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  
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회관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삭감요구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예산(문화회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정학**

문화회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박성식 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님.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박성식 위원**

공원 내 모래 소독 7개소가 있는데요. 모래 소독이 좀 생소해서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어린이공원에 바닥포장재로 모래 소독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대부분 탄성포장으로 가는데, 지금  
추세가 다시 모래포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흙을 만지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모래 소독은 환경보건법상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해 하지 않게 되면  
앞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지만, 모래 교체 얘기도 나왔었는데 모래를 교체할 경우에는 비용이  
7개소에 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모래 소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요.

모래 소독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유인물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해해 주시면 한 부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니다.

**○위원장 서정학**

예.

(집행부 유인물 배부)

**○늘푸른과장 김성영**

모래 소독 방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처럼 그렇게 절차가 진행되거든요.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  
니고, 그 기기를 가지고... 모래 두께는 30cm입니다. 깔려있는 것 전체를 훈증하는 방법으로 소독을  
해서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기생충이 있는지, 안에 여러 유해물질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저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제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박성식 위원**

그 안에 유해물질이 있거나 하면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교체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유인물도 드렸지만, 일단 모래를 채로 칩니다. 유리라든지 큰 돌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거든요. 그런 것은 다 걸어내고, 순수한 모래만 가지고 기계로 훈증을 합니다. 고열로, 상당한 고열로 가열을 하면 안에 있는 기생충이나 그런 것은 다 죽거든요. 그렇게 한 것을 무작위로 채취해서 대한산업안전협회에 보내서 그 결과 테스트를 합격하면 400만 원의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런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다.

**○박성식 위원**

지금 7개소인데, 공원이 소독할 게 7개소밖에 없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대부분 반여1동하고 반여3동, 반송2동, 그렇습니다. 옛날에 했던 공원은 했고요. 지금은 안 하고 그렇습니다.

**○박성식 위원**

알겠습니다. 동래~해운대 근린공원 녹지조성 사업인데요. 이게 편성 사유를 보면 시비 확보를 하라고 했는데, 시비 확보가 어려운 겁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지방재정법이라고 합니까? 지방자치법을 보면 근린공원 이상은 부산시가 조성 및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이하 소공원까지는 구에서 조성 및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저희한테 관리비 일부를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은 대단위 공원을 조성하고 있지만 실제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작은 소규모 공원은 저희가 조성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000만 원인데, 시에다가 큰 사업도 아닌데 요구하기는 뭐해서 저희가 편성했던 사항이고요. 지난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때도 저희가 요구했었거든요. 그때도 누락이 됐었고, 시에서도 대규모 사업만 지원하지, 소규모 사업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남을 부지로 판단됩니다.

**○박성식 위원**

지금 보면 나대지로 되어 있던데, 옆에 보면 공사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박성식 위원**

공사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기부채납 식으로...

**○늘푸른과장 김성영**

그분들은 조성하지 않고 상가의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용 측면에서 열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박성식 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유지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가능합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시유지입니다. 사유지가 아니고 부산시유지, 자기들이 무단 점유한 것을 저희가 뺏아왔습니다.

**○박성식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학**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은영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학**

최은영 위원님...

**○최은영 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저는 오늘 양봉이 일자리경제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예.

**○최은영 위원**

별이 이렇게 자연환경 보전과 경관 유지에 기여를 한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생존수영 교실 같은 경우에 운영단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이게 한국생존수영협회도 있고 대한생존수영협회도 있고 한국해양구조협회도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최은영 위원**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실 생각인데요?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일단 예산 확보가 되어야 하겠고요. 예산 확보가 되고 나면 저희가 이런 수상구조사 등 전문자격을 풀을 한번 체크를 해서 가장 적합한 곳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해경이라든지 이런 쪽의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협업하고 있는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파악할 예정입니다.

**○최은영 위원**

기존에는 119수상구조대에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구조대에서는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저희가 이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경과 119구조대를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구조대는 현재 성수기에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에 구조요원으로 파견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존수영 교실에는 지원할 인력이 없고, 향후에도 불투명하다는 그런 유선통보를 받은 상황이고요. 해경 같은 경우도 올해 처음으로 바다에서 하는 해상수난 교실을 전국에서 10개소 정도 했는데, 부산 해경에서 송도해수욕장에 한 달 정도에 10번 정도를 비예산 사업으로 시행

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은영 위원**

119의 회신공문을 첨부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첨부가...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그것은 상임위에서 검토하실 때 119의 회신공문 같은 것을 받는 게 있는지 첨부하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만 갖고 있습니다.

**○최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최은영 위원**

모래 소독과 관련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모래가 있는 놀이시설은 7개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그렇습니다.

**○최은영 위원**

매년 하던 겁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죄송한데요. 제가 와서 놓쳐가지고 2년을 안 했었습니다.

**○최은영 위원**

왜 그러셨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2017년까지는 했었고요. 2018~2019년도는 못 했습니다.

**○최은영 위원**

왜냐하면 대부분 바닥을 모래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시설로 하는데... 제가 이전에 업을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놀이시설과 관련해서 모래 소독은 꼭 해야 하고요. 이것은 연 몇 번 하죠?

**○늘푸른과장 김성영**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최은영 위원**

연 1회 하고 바로 확인받고 끝나겠네요, 그렇죠?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그렇습니다.

**○최은영 위원**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해마다 하고, 만약에 그 사이사이에 민원이 생긴다든지 하면 소독은 말고, 이물질 수거는 하지만 소독까지는...

**○최은영 위원**

이게 용역을 주는 거죠? 말하자면 발주를 해서 하는 거죠?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그렇습니다.

○**최은영 위원**

계속해야 하는데... 이것 혹시 용역을 안 주고 우리가... 기계나 이런 것들은 비싼가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저희가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 인력을 투입해야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아웃소싱을 주는 게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도와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연 1회 가지고 되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모래를 교치하는 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모래를 뒤집어서 소독을 해줘야만 안전성이 확보되거든요.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최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과 관련해서, 문화회관장님.

○**문화회관장 윤창희**

예.

○**최은영 위원**

문화회관은 사실 일반적인 건물과 다르게 문화적 공간이니까 잘 관리가 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회관장 윤창희**

예.

○**최은영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삭감요구에 올라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해야 할 것 같은데...

○**문화회관장 윤창희**

저희가 제시한 그 공법이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최은영 위원**

공법이 맞지 않다는 것은 누가 판단합니까?

○**문화회관장 윤창희**

얼마 전에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김상수 위원님하고 정순세 위원님하고 두 분이 현장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설명을 들으시고 그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최은영 위원**

공법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화회관장 윤창희**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2년에 걸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 의견을

그대로 쫓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최은영 위원

지금 사진이 없는데요. 로비에 누수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문화회관장 윤창희

예,

○최은영 위원

누수가 육안으로 보입니까?

○문화회관장 윤창희

천장 부분하고 전면 유리창 부분으로 조금씩 흘러내립니다.

○최은영 위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웃음) 문화공연을 하는 공간에 누수가 되고 있는데 여태까지 그냥 뒀다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고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학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학

김혜진 위원님.

○김혜진 위원

반갑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문화회관장 윤창희

예.

○김혜진 위원

지금 해운홀 로비 옥상 방수공사와 관련해서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자료만 보가지고는 누수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방수공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조금 더 보강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어서요. 예산안 조정을 하기 전까지 자료를 더 받았으면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서정학

지금 되겠습니까?

○김혜진 위원

사진 자료로 보고 싶습니다.

○문화회관장 윤창희

예, 알겠습니다.

○김혜진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고요.

○위원장 서정학

관장님, 마치기 전까지 주시고요.

○김혜진 위원

그리고 늘푸른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김혜진 위원

어린이놀이시설이 해운대구 전체에 7개소만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아까 답변이 그렇게...

○늘푸른과장 김성영

바닥재가 모래로 된 공원이 7개소만 있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다...

○김혜진 위원

현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만드는 어린이놀이시설은 바닥재를 보통 뭐로 합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요즘은 보통 탄성포장으로 합니다. 주민들이 탄성포장을 많이 요구를 하고요. 그런데 새로운 트렌드가 흙을 만지길 원해서 또 모래를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혜진 위원

제가 작년 여름에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순천의 어린이놀이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모래를 주기적으로 소독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2년째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모래로 되어 있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비용이 들어간다, 그렇죠?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그렇습니다.

○김혜진 위원

그러면 위치가 거의 반여동, 반송 쪽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지역 위원님들하고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용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모래를 만지는 것은 물론 아이들의 정서발달에 좋은 일이긴 한데, 모래를 소독하지 않은 저저분한 데서 애들을 키울 수는 없는 입장인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했으면 하고, 우리에게 숙제가 주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예.

○김혜진 위원

아까 답변 중에 제가 설명을 조금 놓쳐서 그런데 양봉농가가 어디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고... 석대, 반송?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석대하고 반송산지에 있습니다.

○김혜진 위원

양봉농가가 몇 가구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예, 23명입니다.

○김혜진 위원

23가구입니까? 23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23명입니다.

○김혜진 위원

한 가구에 몇 분 계신지도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반원으로 해서 개인별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2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혜진 위원

산출내역에 별집을 보면 4만 원에 175박스거든요. 그러면 1인당 얼마나 나눠줄... 똑같이 나누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일단 산출 기초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구비 지원이 700만 원이고, 자부담이 300만 원입니다. 작목반이 원하는 자재가 있지만 저희는 올해 처음 지원했던 별집을 대상으로 해서 산출을 냈고요. 별집이 한 박스당 5만 7,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자부담 1만 7,000원이고, 구비 지원이 4만 원이면 175박스 정도 해서 1인당 7개 박스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학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수 위원

문화회관장님.

○문화회관장 윤창희

예.

○김상수 위원

관장님이 답변하신 게 조금 석연치 않고요. 이 건물이 2006년도 준공이죠?

○문화회관장 윤창희

예.

○김상수 위원

옥상 방수공사가 처음입니까?

○문화회관장 윤창희

예, 처음 지을 때 당시에 하고는 손을 안 댔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옥상 방수공사가 생기고 처음이지 않습니까?

○문화회관장 윤창희

예.

○김상수 위원

아까 관장님이 2016년도와 2017년도에 전문가를 불러서 컨설턴트(consultant)를 하셨죠?

○문화회관장 윤창희

예.

○김상수 위원

전에 관장님이, 그렇죠?

○문화회관장 윤창희

예.

○김상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2016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어떤 공법으로 시공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셨고, 2017년도는 어떤 공법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문화회관장 윤창희

설명 자료에 있는 것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6년도에는 어려운 말들이 많습디만, ‘비노출 우레탄 재료 및 보호벽돌을 제거, 옥상 난간 벽과 보호벽돌의 오픈트랜치와 루프드레인 재시공.’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비노출은 말 그대로 묻혀있다는 뜻입니다. 옥상 바닥에 묻혀있다는 뜻이고, 오픈트랜치라는 것은 비가 오면 보통 옥상에 물이 고여 있다가 경사를 따라서 물이 흘러 배수로를 통해서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오픈트랜치는 물이 고여 있으면, 우리말로 하면 물고랑 정도 됩니다. 물고랑처럼 옥상에 흠을 파는 거죠. 흠을 쪽 파놓으면 물이 그 쪽으로 빨리 모여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뜻이고요. 루프드레인이라는 것은 옥상에서 물이 밑으로 수직으로 빠질 때 보면 찌꺼기나 낙엽 같은 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덮고 있는 주물, 또는 플라스틱 이런 것을 주로 루프드레인이라고 표시합니다. 2016년은 이렇고요.

2017년도는요. TPO 패널방수 또는 무기질 탄성 도막방수라고 해놓았는데, TPO 패널방수가 뭐냐 하면 TPO라는 재질은 플라스틱과 고무의 합성입니다. 각각의 장점을 딴 그런 재질로 만든, 그러니까 방수가 상당히 잘되고 내구성이 좋은 그런 재질입니다. 옛날에 하던 시트 방수지가 아닌 TPO 패널을 넣는다든지... 또 시공과 보수가 용이한 무기질 탄성 도막은 재료를 특수 시멘트를 씁니다. 그 다음에 접착하는, 잘 들러붙는 아교 같은 그런 성질을 섞어서 원래 바르고자 하는 콘크리트 면에 빈틈이 없도록 아주 잘 바르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이 공법은 내구성이 강한 것하고 접착력이 좋다, 또 유지·관리가 비교적 쉽고 경제적이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현재 관장님이 권장하는 공법은 어떤 공법이죠?

○문화회관장 윤창희

...

○김상수 위원

2,100만 원의 예산을 올렸죠? 어떤 공법으로 2,100만 원입니까?

○문화회관장 윤창희

이 두 가지를 절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옥상에서 물이 빨리 빠질 수 있도록

물고랑 형태의 물길을 내고, 그리고 옥상에 물이 고여 있는 부분은 이런 TPO 패널방수를 이용해서 그 재질로 안에 한번 방수가 되도록 넣고 그 위에 다시 시멘트를 바르는, 몰타르를 바르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김상수 위원**

관장님, 지금 옥상의 방수, 누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물이 샌다고 생각하니까? 원인 제공이 뭐예요?

**○문화회관장 윤창희**

이것을 처음 지을 때 당시에 시트지를 안에 넣었습니다. 그 위에 몰타르를 발랐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약간의 균열이 생기면서... 물고랑이 없다 보니까 일정 부분에 물고임 현상이 생깁니다. 항상 옥상에 보면... 그 물이 고이면서, 난간 쪽으로 가면 턱이 있습니다. 턱 앞에서 좀 많이 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턱의 틈을 통해서 물이 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상수 위원**

저는 우리 관장님이 설명하는 것과 정반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건물이 2006년도에 준공되어서... 예산 편성사유를 보면 '건물의 노후화로 로비 옥상 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후화로, 오래되어서 옥상에 누수가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옥상의 면적이 얼마나 되죠?

**○문화회관장 윤창희**

옥상 전체 면적은 상당히 큰데...

**○김상수 위원**

아니, 전체 면적 말고...

**○문화회관장 윤창희**

대상으로 하는 것은 280㎡ 정도 됩니다.

**○김상수 위원**

280㎡면 평수로 하면 몇 평이죠?

**○문화회관장 윤창희**

0.3을 곱하면 70여 평 됩니다.

**○김상수 위원**

대략 80평으로 잡겠습니다. 옥상에 올라가 보면 거기가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으로 되어 있고...

**○문화회관장 윤창희**

예.

**○김상수 위원**

건물이 노후가 되어서... 일반 아파트에도 보면 5년이 지나면 옥상에 우레탄방수라든지 재시공을 합니다. 여기는 2006년인데, 한 번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건물을 튼튼하게 잘 지었겠죠. 지금 와서 누수가 생기는데, 옥상 면적이 80평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관장님의 말씀은 물이 고여서, 한쪽에 고일 수는 있겠죠. 물이 고여서 그런 것보다는 80평에 물이 고여 봐야 얼마 양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게 오래되어서 균열이라든가 틀림현상이 생겨서 창가 이음새 부분에... 그것은 어디 가도, 아파트도 옥상 벽면, 측면에 오래되면 틈이 생깁니다. 콘크리트도 오래되면

부식이 되고 노후가 되면 수명이 짧아서 그런 틈새가 생겨서 물이 샐니다. 그런 원인입니다.

공법이 80평짜리의 옥상에 물이 고여서 오픈트랜치를 길쭉하게 다 설치하겠다? 그런 공법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옥상 80평 규모에 물이 고여서 오픈트랜치를 설치해서 물을 빼겠다? 그러면 그 오픈트랜치 두께가 아무리 못해도 10전은 됩니다. 옥상 두께가 20전, 30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10전을 크랙을 가지고 뚫어내어서 거기에다가 오픈트랜치를 묻어서 방수를 아무리 잘해도 10년 지나면 지금처럼 틀림현상이 생깁니다. 80평의 물을 빼기 위해서 오픈트랜치를 설치한다는 발상이 잘 못됐다는 것이고요. 그날도 얘기했지만...

이게 13년이 지나서 틀림으로 인해 창가에 균열이 생겨서 물이... 현재 많이 새지 않습니다. 약하게 보이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보완법을 찾아야지, 옥상에 오픈트랜치를 묻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오픈트랜치를 묻는다는 것은 물을 원활하게 빼는 그 역할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조금 면밀하게 보셔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방수가 도막방수가 있고 시트방수가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문화회관장 윤창희**

예.

**○김상수 위원**

도막방수는 우레탄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해놓은 게 우레탄이죠?

**○문화회관장 윤창희**

예, 우레탄입니다.

**○김상수 위원**

옛날 공법이죠?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파트도 그렇고...

**○문화회관장 윤창희**

예.

**○김상수 위원**

지금은 시트방수로 많이 하죠?

**○문화회관장 윤창희**

시트로 많이 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도막방수를 보면 4~6년이 지나면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재시공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문화회관장 윤창희**

예.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또한 도막방수의 두께가 균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변수가 또 생기고요.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TPO 방식이나 PVC(폴리염화비닐) 방식, EPDM(기능성 합성고무) 방식, 그렇죠? 요즘 나오는 게... 아까 플라스틱이나 공구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가장 최근에 많이 쓰는 공법이 TPO 방식, 그렇죠? 여기에도 나열되어 있는데...

○문화회관장 윤창희

예.

○김상수 위원

TPO 방식이 열풍용접 시 연기 발생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체에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렇죠?

○문화회관장 윤창희

예.

○김상수 위원

TPO는 한번 시공하면 기간이 오래가는 것으로 나와 있죠?

○문화회관장 윤창희

예, 15년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15년... 이게 지금 13년이지 않습니까?

○문화회관장 윤창희

예.

○김상수 위원

우레탄으로 해서 13년입니다. 아파트처럼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틀림현상이 빨리 오지 않습니까? 열 받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옥상에 올라가 보시면 위에 칸막이로 해서 이렇게 밑으로 사각으로 되어 있고, 위에 철재로 해서 열을 받는 빈도가 굉장히, 일반 아파트는 바로 노출되어 있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문화회관장 윤창희

예.

○김상수 위원

그래서 여기에 맞는 공법을 정확하게 찾아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거기에 맞는 해결점을 찾아야 하는데, 자료에 보면 이러 이러해서 ‘붕괴 위험’, 붕괴라고 하면 안 하면 안 되죠. 굉장히 위험하게 해놓았는데, ‘붕괴 등 대형 사고가 우려된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문화회관장 윤창희

그 붕괴는 천장 석고보드라고...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천장 석고보드가 옥상인데... 이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크게 우려해 놓았고요. 이 공법, 오픈트랜치는 옥상에 맞지 않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 상식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구청 신관에 올라가든지 별관에 올라가도 오픈트랜치는 없습니다. 어디에 가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거기에 맞는 공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위원장 서정학

김상수 위원이 전문가 이상으로 자료를 많이 파악하셨네요. 그 정도로 해주시고요.

○김상수 위원

예. 이왕 하시는 것 제대로 해서 지금처럼 오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상입니

다.

○위원장 서정학

김상수 위원님, 다른 과는...?

○김상수 위원

다른 과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정학

김성군 위원...

○김성군 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늘푸른과장님.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김성군 위원

아까 김혜진 위원이 질의한 것, 어린이놀이터 모래 소독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400만 원으로 됩니까? 7개소인데...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김성군 위원

충분합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충분합니다.

○김성군 위원

대충 처삼촌 묘 벌초하듯이 하는 것 아닙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아닙니다. 업체에다가 물어보고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성군 위원

면적은 몇 평이나 됩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전체 7개소에 1,396㎡입니다. 그리고 깊이가 30cm이기 때문에 세제곱미터로 하면 418㎡ 정도...

○김성군 위원

어린이놀이터가 복잡하거든요. 미끄럼틀도 있고 철봉도 있고 사람이 들어가서 긁고 해야 하거든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일일이 철을 쳐서 합니다.

○김성군 위원

하기는 해야 하는데, 예산이 이것 가지고 대충하지 않나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주신다고 하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학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위원님.

○장성철 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시간이 얼마나...

○위원장 서정학

아니요. 30분에 (정회를)... 5분 정도 더 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관장님, 해운홀 옥상 방수공사, 아까 김상수 위원하고 정순세 위원이 가셨다니... 제가 물론 옥상에 안 가봐서 그런데 새시와 유리 사이 틈새에 실리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리콘 작업을 언제 한번 했습니까?

○문화회관장 윤창희

별도로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니까 물이 새시 유리 한 중간에서 나온다고 해도, 딱 거기에서 바로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낮은 데로 물이 흘러와서 이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단디하시고... 또 옥상에 보면 물이 내려가는 통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낙엽이나 이런 거로 막힐 수가 있으니까 수시로 올라가서 그것을 관리하시고, 새시 유리에 실리콘 작업부터 먼저 봐야 되겠는데... 그것을 한번 보십시오.

○문화회관장 윤창희

예.

○장성철 위원

늘푸른과장님.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위원님.

○장성철 위원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반갑습니다.

○장성철 위원

사진상에 보면... 금액도 3,000만 원으로 해놓았는데, 그렇죠?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금액을 전체적으로 보면 2,500만 원밖에 안 올라왔고, 500만 원은 어디 갔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어떤? 3,000만 원 예산 중에서...

○장성철 위원

500만 원은 부가세입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아, 급하게 치다 보니까 1,300만 원이 아니고 1,800만 원인데...

○장성철 위원

예?

○늘푸른과장 김성영

여기 보시면 식재가 1,300만 원이 아니고, 1,800만 원입니다.

○장성철 위원

그렇습니까? 급하게 치다 보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죄송합니다.

○장성철 위원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상에 보면 길쭉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장성철 위원

상가 건물 뒤에 공원을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상가 주민들은 공원 설치를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렇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동래~해운대 근린공원이 해운대해수욕장의 관광 이미지 차원에서 원동IC부터 동백섬 입구까지 띠처럼 공원이 되어 있거든요. 해마다 부산시에서 땅을 사들여서 가로변 녹지 이게 다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런데 평수는 몇 평입니까? 70평 정도 안 됩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구역은 두 군데고요. 면적은... 잠시만요.

○장성철 위원

길쭉하게 생긴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뒤편에 하나 더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뒤편에?

○**늘푸른과장 김성영**

뒤에 도면을 보면 세 번째 사진...

○**장성철 위원**

(자료를 보며) 아, 이거예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약 384㎡ 정도 됩니다.

○**장성철 위원**

뒤쪽에 이것은 어느 쪽입니까? 길쭉한 것 말고... 길쭉한 거는 상가 앞에 있는 거고...

○**늘푸른과장 김성영**

뒤쪽은 더샵센텀누리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장성철 위원**

센텀누리아파트 앞에?

○**늘푸른과장 김성영**

더샵센텀누리아파트, 옛날에 재송 새마을 있지 않습니까? 마을 입구 쪽에... 지금 더샵센텀누리아파트가 들어섰고... 입구 쪽에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더샵센텀누리아파트 입구 쪽에?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두 군데네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장성철 위원**

나는 길쭉한 것 이것만 봤는데...

○**늘푸른과장 김성영**

저희 관에서는 해운대로 경관상으로 수목을 식재하고 정비를 해야 하지만, 토지 소유자는 반대하고 있고요. 그런데 앞에는 다 해왔거든요. 보시면 쪽 가로등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딱 잘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합쳐서 500주나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작은 꽃이 피는 철쭉류하고 관목류를 심습니다. 앞쪽에 큰 나무를 심어가지고는 이분들하고 싸울 필요는 없거든요. 꽃나무만 심어도 깨끗하게 정비가 됩니다. 큰 나무를 심을 생각은 없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면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들어가지는 못하지요. 바라보는 녹지입니다.

**○장성철 위원**

나는 이 건물에 휴게시설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공원처럼...

**○늘푸른과장 김성영**

그것은 아닙니다. 이 울타리도 저희가 요구를 해서 쳤거든요.

**○장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래 소독은 탄성포장으로 바닥을 싹 바꾸면 어떻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약 1억 8,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장성철 위원**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되네, 을 지구 쪽에는?

**○늘푸른과장 김성영**

그것은 아니고요.

**○장성철 위원**

아니고가 아니라 모래 자체에 고양이 똥하고 역수로 있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이번에 신시가지 내 견우공원하고 와우공원을 리모델링했거든요. 주민들이 모래사장을 요구해서 거기에 모래가 들어갑니다.

**○장성철 위원**

우리 것을 좀 갖다 주십시오. 우리는 탄성포장으로 바꿔주고...

**○늘푸른과장 김성영**

주민들이 모래를 요구하는 추세라서...

**○장성철 위원**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바꾸자는?

**○장성철 위원**

지금 있는 모래로 쓰니까 그동안 어떠했나. 안 그러면 탄성포장으로 바꿔줄까... 예산이 없어서 그 말씀을 안 했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공원 조성이 10년 이상 경과된 공원에 대해서는 꾸준히 리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장성철 위원**

좀 참고를 하시고...

**○늘푸른과장 김성영**

이번에 반여1동하고 반여3동의 공원에도 기간이 도래한다고 하면 리모델링을 할 때 의견을 받아서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예, 참고하셔서 을 쪽에는 할 게 없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좀 찾아주십시오.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학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릴게요.

○장성철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마칠까요, 그러면?

○위원장 서정학

시간이 됐으니까...

○장성철 위원

일자리경제과에 하나만 더 하면... 양봉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예.

○장성철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정말 이만큼 많이 할지 몰랐는데, 일자리 창출도 하고... 양봉 이것은 자기 땅에 서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자기 땅은 아니고요. 제가 알아보니깐 요즘은 워낙 이상기온이고 해서 고정식이 아니라 이동식 양봉이 80% 이상이더라고요.

○장성철 위원

하다가 다 들고 또 다른 데로... 벌을 따라서 다녀야 되네?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예, 그런데 석대동 산지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기장이라든가...

○장성철 위원

석대 거기는 전부 다 그린벨트 지역이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그쪽하고는 다르고요. 위치가 어디냐 하면 반송 어귀삼거리가 있는, 거기 맞은편 산 쪽에...

○장성철 위원

아, 산에서?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예.

○장성철 위원

나는 석대 화훼단지 옆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아닙니다. 석대로 통칭이 되는데, 반송1동이지요. 행정동은...

○장성철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예.

○장성철 위원

이것을 이때까지 안 하다가 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양봉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국 단위에서는 자재비라든지 홍보비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부산 시에 가까운 기장 쪽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어서 저희 구에 있는 양봉인들도 좀... 왜냐하면 이분들이 기장으로 이동하실 수도 있고 한데, 좀 형평성 문제를 들어서 저희가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 해서 700만 원을 최초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장성철 위원

류영 과장님, 양봉을 부산시에서 하는 것보다 어디 시골에 들어가서 하는 게 맞지, 우리가 자꾸 지원을 해준들 벌도 자꾸 죽고 하면 벌을 따라다녀야 하는데, 굳이 이것까지 해서... 우리 해운대구에 있어야 할 그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양봉을 하는 주 사업지가 석대에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23명의...

○장성철 위원

양봉을 한 지는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몇십 년이 됐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올해 처음 지원했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갑자기...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워낙 이상기온으로 양봉 산업이 급감하고...

○장성철 위원

이상기온으로...?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생산량이 너무 저조해지니까 양봉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장성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예.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학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을 것이고요. 지금 30분이 됐기 때문에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정회)

(16시 44분 속개)

---

**○위원장 서정학**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장성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류영 씨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예.

**○장성철 위원**

나는 참 머리가 안 좋아서... 생존 수영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일에 1,000만 원이 나가면 하루에 얼마입니까? 금액으로 100만 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25만 원입니다.

**○장성철 위원**

예? 아니, 20일에...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125만 원입니다.

**○장성철 위원**

하루에 125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예.

**○장성철 위원**

지금 119구조대에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지원해 주죠?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119구조대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에 구조대원에게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2만 5,000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금액이 총 9,000만 원 정도 갑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그러니까 간식비가 1일에 2만 5,000원...

**○장성철 위원**

그러니까 9,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수영교실도 자기들이 20일만 지원해 달라고 했으면 공문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온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기들은 그 정도의 지원을 받으니까 20일 정도는 충분히 그런 봉사를 하겠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그것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에 피서객의 안전을 위한 업무를 하는...

**○장성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날짜는 언제인데요?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 교실 운영을 언제쯤 하실 예정이신데요?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성수기인 7월이나 8월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7월에서 8월...?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예.

**○장성철 위원**

그런데 개장하고 최고 성수기 때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처음에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꼭 해수욕장에서 한다가보다 어촌 활성화 차원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장성철 위원**

어촌 활성화하고 지금 생존 수영교실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그러니까 저희들이 청사포나 송정 쪽을 활용해서 바다 생존 수영교실을 하게 되면 어촌을 방문하는 방문객도 고정적으로...

**○장성철 위원**

그러면 장소가 청사포나 그런 데입니까?

**○위원장 서정학**

답변을 들어보시고 천천히 질의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지금 현재 장소는 특정하지 않고 해수욕장이나 어촌에 있는 안전한 바다를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면 지금 청사포나 미포, 이쪽입니까? 해수욕장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사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단 대상지로 삼는 곳은 해수욕장과 어항 주변의 안전한 바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어항 주변에...?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어항 주변에 왜 이것을...?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이게 수난 사고를 대비하고자 하는...

**○장성철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바다에서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한 구민의 응급 수영교실,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면 지금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어촌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아니요, 구민을 대상으로 하되 어촌이나 해수욕장을 연계해서 하겠다는 거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수영이 아니라 주변의 용품을 이용해서 뗏목 만들기라든가, 아니면 어선이나 선박에서 일어난 사고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곳의 사례를 보면 해양대학교에 있는 실습선이라든지, 관공선을 이용해서 어선 사고에 대비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필요한 경우에 어촌의 어선 같은 것도 협조를 받아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반영해 주신다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감안해서 구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계획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장성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온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나오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올립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개략적인 것은 해 놓았지만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때는 또 여러 가지...

**○장성철 위원**

그런데 이 해양 구조대는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그러니까 전문 수난 구조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해양구조협회라든가, 생존수영협회, 이런 데 인력 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모셔서 전문 강사 교육에 투입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장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학**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 자료화면 제시)

관장님, 지금 현재 저 사진이 보이시죠?

○문화회관장 윤창희

예.

○김상수 위원

제가 엇그저께 가서 촬영한 현재의 옥상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주신 유인물은 2016년도 12월 12일에 촬영한 사진인데 저 화면 속의 옥상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죠? 옥상 가운데 위에 트렌치 철근이 짝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6년도 12월 12일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문화회관장 윤창희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 말씀입니까?

○김상수 위원

아니요, 위에 철근으로 해서...

○문화회관장 윤창희

아~ 그거요? 그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사진에는 없는데...?

○문화회관장 윤창희

그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이것은 바닥에 내려가서 찍었고 저것은 위에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김상수 위원

아까 관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물이 새서 오픈 트렌치 시공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우레탄 방수가 기존의 도면에는 몇 미터로 돼 있죠?

○문화회관장 윤창희

몇 미터까지는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관장님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레탄 방수 3m에 도막 방수 공법을 적용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3m로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문화회관장 윤창희

아, 이것은...

○김상수 위원

그 뒤의 견적서를 한번 볼까요. 견적서를 보면 트렌치에 관한 재료비라든가, 시공은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까?

○문화회관장 윤창희

...

○김상수 위원

전체적으로 방수입니다. 바닥 방수, 초벌 미장, 액체 방수, 정벌 미장, 우레탄 방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적 전체가 286㎡인데 지금 우레탄 방수는 300㎡로 돼 있습니다. 지금 철거해서 방수하겠다는 게 저 측면에 보이는 새파랗게 돼 있는 부분 맞죠, 파란 우레탄...?

○문화회관장 윤창희

예.

○김상수 위원

저겁니다, 그럴죠? 철거, 맞습니까?

○문화회관장 윤창희

...

○김상수 위원

지금 견적서를 보면 ‘철거’ 해 가지고 46m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길이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뒤에 있는 도면을 보시게 되면 철거 후 액체 방수, 우레탄 방수를 할 부위가 파란 선으로 그어진 저 부위입니다. 그다음에 저 안쪽의 넓은 부위는 우레탄 방수가 아니죠?

○문화회관장 윤창희

저기는 TPO나 이런 걸로 할 겁니다.

○김상수 위원

제가 보니까 그냥 공구류로 해 가지고 옥상에 우레탄 방수를 할 때 자체적으로 아마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물량 산출 근거를 보게 되면 전체 286㎡ 중에서 우레탄 방수는 저쪽이 아니고 지금 46m 거리에 대한 견적서가 나와 있는데 산출 근거가 2,100m입니다. 그런데 액체 방수하는 것도 다 46m이고 초벌 미장도 46m인데 트랜치를 설치한다는 것은 1%도 없습니다. 그런데 관장님은 어떻게 트랜치를 설치한다고 하셨죠?

○문화회관장 윤창희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에 세팅할 당시에 그때 나온 겁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장님이 예산을 2,100만 원을 올렸잖아요?

○문화회관장 윤창희

예.

○김상수 위원

2,100만 원이라는 건 뭐니까?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고 2,100만 원을 올린 거 아닙니까?

○문화회관장 윤창희

그것은...

○김상수 위원

(견적서를 보여주며) 그렇게 하겠다고 올린 2,100만 원짜리 견적서가 이겁니다. 본 적이 있습니까? 관장님이 올리셨네요. 2020년도 삭감·검토요구예산 자료에 예산 2,100만 원하고 뒤에 견적서도 다 올렸네요.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올린 자료하고 앞

의 말씀하고 또 뒤에 있는 견적서하고 화면하고도 앞뒤가 전혀 안 맞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뒤에 새파랗게 해 놓은 저 부위가 우레탄입니다. 그런데 저 틈새에 생긴 크랙(crack)을 2006도부터 오늘날까지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어서 틀림으로 인해서 지금 누수가 생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보강을 하시든가, 다시 손을 보셔야지, 전체적으로 우레탄 방수가 어찌고저 찌고 트랜치를 설치해서 물을 뺀다, 이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저런 상황에서는 공법이라든가,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해도 그렇게 늦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관장님이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하셔야지, 지금 관장님이 올린 자료는 2016년도에 업체들이 갖고 왔던 방법을 다시 올리셔서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출해 주신 흑백사진도 쪽 봤습니다. 그런데 옥상에 관련된 것은 극소수이고 나머지가 밑에 있는 주차장의 뚫, 지하부터 해서 틈틈이 다 잡혀 있습니다, 옥상이 아니고요. 문화회관 전체의 누수를 잡는 거죠. 그래서 지금 관장님은 옥상의 트랜치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위원장 서정학**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이 자료하고 지금 저 자료하고는 앞뒤가 다 안 맞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정학**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늘푸른과, 문화회관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세심하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전문가 이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자료에 부실한 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관장님께서 그 정도로 알아주시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식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양봉작목반에 대해서 좀... 아까 설명서를 보니까 이윤 창출도 가능해서 최근에 주요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해 놨던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양봉업자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23명이 있습니다.

**○박성식 위원**

이분들이 전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예.

**○박성식 위원**

이분들이 전부 다 양봉업에 매달려서 하시는 분들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예, 그렇습니다.

**○박성식 위원**

아니면 취미로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아마 업으로 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식 위원**

혹시 업으로 하지 않고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이 되면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닌가 싶어 질의를 했구요. 그런데 지금 타 구를 보면 이것을 기장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예, 기장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성식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학**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부위원장님.

**○최은영 위원**

저는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 놀이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바닥재를 탄성재로 대부분 많이 쓰고 있는데 탄성재의 소재 자체에 굉장히 유해한 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암을 유발하는 성분도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그리고 유지 보수에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세 자체가 기존처럼 모래로 많이 하는 추세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성재로 바꿀 것이 아니라 반여·반송에 놀이시설이 부실한 것들이 많다면 그 놀이시설들을 아이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체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세는 모래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이들의 건강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서정학**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위원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시죠.

**○장성철 위원**

과장님, 금방 최은영 위원님의 말씀대로 탄성재보다 모래로 가게 되면... 그런데 길고양이가 많아 서 모래에 똥, 오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하든지, 두 달에 한 번 하든지, 청소를 계속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놀이기구도 다시 한 번 봐주시고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위원님이 도와주신다면 일단 이번 본예산에 승인을 받고 장비 구입 문제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어떻게 할지는 다음에 보고를 한번 드리고 추경 때 반영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서정학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하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 시유지는 시에서 할 수도 있죠?

○늘푸른과장 김성영

시에 건의는 하겠지만... 저도 시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시에서는 소규모 사업은 지원하지 않고 대규모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학

작은 것, 이런 것은 너희가 해라...?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학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큰 것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늘푸른과장 김성영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정학

잘 알고있고요. 공원의 모래 소독에 관해서 말이죠. 2년 동안 하지를 못했는데 까먹었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그것은 제 불찰입니다. 제가 못 챙겼습니다.

○위원장 서정학

제발 좀 하십시오.

○늘푸른과장 김성영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학

그런데 제가 지금 의문이 가는 것은 그동안에 모래를 깔아놓았는데 이게 2년이 됐다고요. 지금 2년이 됐는데 그 모래가 흠이지, 모래겠습니까? 그 흠만 파 뒤집어서 되겠어요? 모래를 깔아야지요.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 놔다가 지금 와서 살균한다, 흠을 살균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과장님은 전문가잖아요? 놀이터에 까는 모래 굵기 있죠?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제가 지금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릴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도 모래 굵기에 대한 것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사하고 굵은 모래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장 서정학

당연히 있죠. 어린이 놀이터에 써야 될 모래가 있다고요. 그것을 2년 동안 관리를 안 했으면 이게 흠이 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흠으로 된 것을 다시 뒤집는다, 이것은 택도 아닌 소리입니다. 다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일단은 제가 잘못했구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모래는 이렇게...

**○위원장 서정학**

저도 제 지역구라서 잘 압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땅처럼 돼 있지는 않고 그래도 모래처럼 돼 있었는데 관리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학**

모래를 파 뒤집어서 그게 과연 될는지요. 그러면 해 보고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시공하시겠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이번에 예산을 주신다고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안 된다고 하면 다시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번 건은 제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서정학**

잘 알겠습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요. 잘 알겠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양봉작목반에 자재 지원을 권장하는 이유가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지금 양봉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8월 27일에 양봉산업법이 제정돼서 전 지자체에서 육성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학**

그러면 2020년 8월 28일에 시행을 한 이후에 지원해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당겨서 이렇게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올해도 1회 추경에 되어 있는데 저도 벌집이라는 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1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소한의 설치 자재비를 지원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학**

돈이 많고 적고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 양봉에 관련된 건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예, 산업자원팀에 소속된 업무입니다.

**○위원장 서정학**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 몇 년 동안에 민원이 발생된 게 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민원은 크게 없었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양봉인들의 민원이...

**○위원장 서정학**

민원이 있죠, 왜 없어요? 제 지역구이니까 알죠.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고

요. 그런데 왜 지금은 지원까지 해 주냐고요. 2~3년 전에 발생한 민원이 있어요. 지금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그때는 제가 과장이 아니라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서정학**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도 안 보셨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인근에 별통을 놓게 되면 벌의 배설물이 빨래하고 차에 다 묻는다고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도움만 주면 되는 것입니까? 그 민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지...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관리 부분은 제가 다시 챙겨보고 양봉인들에게도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학**

그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관리를 못 하겠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런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먼저 당겨서 하려고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제정은 됐는데 1년 뒤에 시행이 되니까 내년 8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정학**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느꼈을 때 순서도 뒤바뀐 것 같고 또 적극적으로 보지 않고 자꾸 한쪽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써 그 민원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정학**

잘 알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은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세 분 과장님, 고생하셨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늘푸른과, 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늘푸른과장,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서정학 최은영 원영숙 김상수 박성식 장성철 김성군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재 무 과 장	변수영
소 통 협 력 과 장	김유성
관 광 문 화 과 장	서말숙
일 자 리 경 제 과 장	류 영
늘 푸 른 과 장	김성영
문 화 회 관 장	윤창희

○의회직원

전 문 위 원	손성애
사 무 직 원	김숙경
속 기 사	김혜미
속 기 사	오미선
속 기 사	김수현